

## 老子的 思想과 그 潮流의 概觀

金鼎高

老莊思想批判이란定題를妄意로곳치게된것은 問題의範圍를制限하라는本意에  
잇습니다 老莊을問題로삼는境遇에는老子만으로하는니보담張皇해지겟고 또  
게다가批判까지하라면암만해도簡短하게處理할妙策이업슬듯해서批判에對한  
責任만은 逃避하라는拙算이외다 그러나 漠然히老子的思想이라면內容에對해  
서疑惑이생길듯하기로한마디말을붓쳐둡니다 今番에取扱하는拙論의範圍는가  
장좁은意味로보아주셔야겟습니다-老子的學術及文學에關한問題에는드리가지  
안코다만老子思想의要旨만을畧述한대不過합니다 그도比較的쪼렷하게할수가  
업서서그中에가장緊切한部分만비여서푸러보았습니다 그리고본즉한 不具形의  
무엇이되고말엇습니다마는 亦是不得已한條件이업지안헛습니다 첫재方法에關  
한이약이가너무길고그다음潮流에關한傳粉이너무짜른것을우습게볼듯합니다마  
는 實로는方法에關한이약이만을좀적고 그만둘가하는생각까지했지오-그것은  
이미批判도그만두고또그全貌도紹介할수업는以上에는 그것을研究하는法이나  
마이약이해두는편이엇던가했습니다 더구나愚見으로는平素부터學術이나思想  
을研究하는대 方法을重視할必要가잇는줄미들뿐아니라 近來에老子(老子뿐아니  
라東洋學의研究에)를研究한다는東西人士가모도다老子가살어왔스면 놀내죽을  
번할만한異說을詭弄하는것을볼새무엇보담도見地即方法의立脚地가틀닌것을보  
앗고 그것을整頓하고來學을바로引導하라면方法의修整이徒勞가아닐줄생각하  
든터이엇습니다 그리고 拙論은大概가平素의散漫한持見을略陳한것이오 一貫  
한脉絡이업습니다 그리諒解하고보시오 또潮流에 對한部分이너무짜르게된것  
도 紙數의制限으로할수업섯습니다 그리고圖示表는臨時에그려둔것인즉錯誤가  
업슬수가업습니다 이다음에좀詳細하게적어서前愆贖할가합니다

一, 老子的思想을研究하는方法

二, 老子的道

三, 老子思想의潮流

一. 老子的思想을研究하는方法

바다를건너라면船筏을여히지못할터이고 먼길을가라면車馬를모르는체할수업

다 바다를건너는대車馬로서한다면맞춤내溺死을免치못할터이고 陸를지내는대  
 船筏로써한다면맞춤내 顛沛의 厄을맞날뿐이다그럼으로 筌蹄가곳魚兔는아니  
 나魚兔를어드려면筌蹄를먼저골녀야하겠고 思想이곳方法은아니나思想을알라  
 면方法을먼저살펴야한다 만일甲의思想을反甲의方法으로서푸는새는甲의思想  
 을理解만못하게될뿐아니라 反甲의方法조차 그存在를無意味하게만드는것이며  
 이것과反對로反甲의方法이甲의思想을푸는대맞지안흔까닭으로 그反甲의思想  
 을푸는대까지無意味한것은아니다 그리고본즉反甲의方法이틀닌것도아니고 甲  
 의思想이거짓된것도아니엇만오직使用의錯誤로말미암아 方法이方法노릇을못  
 하고思想이思想답지못하게되는것이다 그럼으로 思想에의方法은 河海에의船  
 筏과陸路에의車馬와魚兔에의筌蹄와갓치 方法이업스면思想을料理할길이업는  
 것은勿論이고 假使方法이있다더라도 그使用의道를그릇치는境遇에는도로혀본  
 대업드니만도못한것이다 그러나 본대업다는것은思想을問題삼지안는範圍에서  
 의말이지 그것을問題삼는以上에는必然히잇지안흘수업고 잇는以上에는正當하  
 게使用하지안흐면못쓸맞게업다 그런데 今古에老子思想을研究하느니中에 저  
 마다틀닌것은아니나 正解하지못한니도만흔편인데 그틀닌理由가거의다筌蹄의  
 錯用에잇고 그筌蹄의錯用이가장도現代評家에만흔듯하다 그러나 남의錯誤를  
 바로보았는지아닌지도疑問이겟고設令바로보았다하더라도 남의錯誤를바로보  
 기만한것으로는 나의錯誤되지안흔證憑이되기도어려울것인즉 나의所見만이老  
 子思想을研究하는唯一方法이라고는主張하는터이아니다마는 다만그錯誤된方  
 法에參同할수업는本意를말해두는대不過하고 아닌것도아니라 나의所信만은  
 老子思想을研究하는대틀니기까지는안흐려니하는方法을論究한다는것이엇다그  
 런대 老子思想을研究할主材料는아마道德經뿐이다 (그외에淸淨經이니, 黃庭經  
 이니, 感應篇이니하는書類가잇스나모도다僞詐이다) 그러나道德經에관해서도  
 亦是云々이잇다『老彭述而不作이란片言과 無爲自然이란文義를曲解하여道德  
 經은아마老子的創作이아니라 前言을集成한대不過하리라고』말은되는듯하나  
 其實은틀닌줄알어야한다 왜?或論과가티老子的書가創作이아니고 集成이라하  
 더래도그一貫한通篇의脉絡을보면그自體대로는一家의見을圓成하얏나니 散漫  
 한傳說뿐으로야億百堆를모흔들엇지이 한體系를作成할수잇스랴 述而不作이란  
 片言에依據하여老子書의出處를疑心하는것은 모름직이讀書法을먼저講習할必  
 要가잇겟고 또無爲自然이란語句를詭弄하여老子的著述經論을疑訝하는것은이  
 것이老子를嘲諷하는滑稽는될는지모르겟스나 嚴正한孝證家の態度는아닌것이  
 分明히그無爲自然의妙蹄를錯解한것이야할수업스닛가(辨老書惑畧)또그外에도  
 老子書에잇는語句가他書에잇슴을摘出하여일업시고로운議論을提起하는이가잇  
 스나 그것은老子가前言을襲用한證跡은되지만 言句의襲用이엇지全思想을襲用

한理由야되라 이것도역시忠實한研究는하지만코好事立異하는釋見으로부터 흘러나오는잔소리에不過할뿐이다 道德經辨이아닌以上에 할말을다할수는업스나 다만道德經이老子思想을論述한唯一典籍인것을前提로해두고야할말이잇는까답이다-老子的思想을研究하는대 그眞正한資料典籍을바로가지지안코는虛空을雕刻하는것이나될터이닛가 그런대 老子研究에對한古今人의方法錯用은一一히列舉할餘遑이업기로잠간두고 나는다만老子自身을吟嘗해서그思想을說明하는편이가장政堂할줄밋는다 이럿케말하면아마彼亦一家見此亦一家見이란懷疑觀的或論이업슬일도아니겠지-대개前人의思想을研究하는대兩途가잇서서或은祖述的이며, 或은批評的이라 前者는그自身의方法을模則할必要가잇지만 後者는純客觀的으로解剖하지안흐면못쓴다고할터이엇다? 이것도 亦是盾의一面만을보는수작에不過하다 設使純客觀的으로 解剖한다할지라도 그解剖의刀刃을 부지럽시놀니는것이아니고 그解剖의對象을解剖하는以上에는 그對象自體의性質을无視하는수가업슬맞게에는 그럿다면 純客觀的으로 그것을批評하기前에 그對象의性質을 먼저瞭解하고야 비로소眞正한意味에 客觀的批評을導出할수잇지안혼가 이段階를无視한客觀的批評이란것은譫語的稱誦이나盲目的譏刺맞게는나을것이 업스리라한다 그리고본즉老子를批評하라면 批評하기前에老子를알어야하겠고 老子를알라면은反老子的方法으로할수업고 老子를正解하라면老子自體의方法에依據할맞게는他途를許諾지안는다 그러나 한말仔細히해들것은대개一個의思想을創出하는自身그自身의方法과一個의思想을研究하는方法으로서그思想家自身의方法을模則하는그方法이꼭同一한것은아니다 이것을一個의實例로서보라면 特히宗教(一個의思想)와宗教哲學(그思想의理論)에볼수잇나니假令一個의宗教的人物이一種의宗教의神秘를闡得했다면 內的或外的으로 有意識或无意識으로 一種의修行方法이잇섯슬터인데 한宗教哲學者가그思想의迷正을批評할境遇에는 그宗教心理의活動에對하여그迷正을批評할程度만치는批評家自身도共鳴的吟嘗이잇서야하는것이다共鳴的吟嘗이란것은만다시그思想을創出하는사람과同一心情을가져야한다는것도아니고 쏘는共鳴을해서그教徒가된後에라야만오직그思想을理解할맞게업다는것도아니다 다만方法으로서그心情을吟味해보는것이그心情을研究하는重要條件이란말이다 그런대老子的思想은아닌게아니라 宗教的이다 同時에哲學的이아닌것도아니다 哲學的이라할지라도宗教的哲學이지, 科學的哲學인편은아니다 아니 元來科學的要求即純粹知性的眞理를探索하라는意圖에서出發한것이아니라 倫理的要求即實踐의究竟義를體得하는는대잇섯고 그結果역시實踐的究竟義를闡明하는대잇섯는데 그體得闡명한實踐的眞理가말하자면宗教的이엇다 그럼으로 그의思想을研究하는대는 그의闡명한意義를領會하고兼하여그의體得한心情을吟嘗하는것이唯一眞傳이다

-眞正하게그意義를領會하고그心情을吟賞하고만보면 老子自身이아니고 그教徒가아니라할지래도 그如何한思想인것은理解까지못할것은업는同時에 眞正한客觀的批評의基礎를잡을수있다 그리자면 먼저老子自身이指示한法要를吟味할지니

曰-古之善爲士者，微妙玄通，源不可識，夫惟不可識 故強爲之容，豫兮若冬涉深，猶兮若畏四隣，儼若客，渙若冰將釋，敦兮其若樸，曠兮其若谷，渾兮其若濁…保此道者，不欲盈…又曰-致虛極守靜篇-歸根曰靜，靜曰復命，復命曰常，知常曰明…又曰-知者不言，言者不知，塞其兌，閉其門，挫其銳，解其紛…又曰-爲无爲，事无事，味无味…又曰 吾言甚易知，甚易行，天下莫能知，莫能行，言有宗，事有君，夫惟无知…又曰-載營魄抱一，能无離，專氣致柔，能嬰兒，滌除玄覽 能无疵…天門開闔，能爲雌，明白四達，能无知…又曰-知不知上，不知知病…又曰-信言不美，美言不信，善者不辨，辨者不善，知者不博，博者不知，聖人不積…又曰-(史記告孔子語)…君子盛德，容貌如愚…略抄

한울이엇지하나맛게조잇스라마는 江海에，池塘에，蹄涔에빚초인한울모양이 제각금갓치안케보이는것과가티 眞理가본대雜多한것이아니엇만 그對象에차라서 제각금特徵이업지못하다 그럼으로 道는一이나 仁者見之爲之仁智者見之爲之智란셈으로眞理에도 各其問題에차라서 그方法이다를맛게업다…老子的道가科學的眞理라기보담 實踐的眞理이며實踐的그것인대도禮儀法度の規矩를制定함에잇기보담 離言絶慮의玄理를闡發함에잇다 그런고로 離言絶慮의玄理를闡發함에는 言詮識別의科學的方法을錯用하지못할것이며 規矩繩墨의禮法的範疇를擅加하지못하는것이다 오직離言絶慮의玄理를闡發함에는 離言絶慮의玄默한內照에依할뿐이니 처음부터離言絶慮의玄默한內照에依하여證得한即地風光의不忍說道할消息을 一言을容함도올치못하고 一物을有함도틀닐뿐이거든 하물며 按排擬議의細工으로이것을잡고저하는것이야 君家の破網으로太空을包羅하라는幻戲에不過할맛게다른意味가무엇이라?呵呵楚苦縣蒼顏老夫가 일즉五千言을說하얏스나五千言言外の趣야엇지蒼頡의鳥跡模形에잡혀잇슬마리오그五千言은實로上士의一言이며 그一言은實로大道의无言이며 그无言의大道는能히有言의眞源이니 一言을容할진대 엇지五千言만限容하라 萬言億萬言乃至无量數言을能容할지라 그럼으로 无量數言의妙諦를解得하라면五千言의樞要를把捉함도可하고 一言의玄竅를照破하라면无言의實地에證入함이可하고 五千言의樞要를把捉하라면 无言의實地에證入하라면 道德經五千文을精讀함도可하고念誦함도可하고追窮함도可하거니와 淵深玄默한精進에依하여五千文文外の地에體達하면伯陽老漢의橫說豎說이모도다自家의註脚일뿐이겠지 그런대 語勢가잠간矯激에흐른듯하다마는筌蹄를살피지안코 牽文曲釋하는時弊에對하여 或이듯케도말

하지만 할수없다 그리고또老子를批判하라면老子自身の立脚地를公正하게觀察하여야하겠고그立脚地를公正하게觀察하라면그思想自體의意義와方法을愼密하게吟嘗하여야하겠고 그것을吟嘗하자면 할수잇는데까지老子自身の道妙를體認하는것이最上方法일줄잇는다…그리고야비로소如何한見地에서든지 老子思想을批判할權利가成立될것이다

## 二. 老子的 道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无名天地之始，有名萬物之母，故常无欲以觀其妙，常有欲以觀其徼，此兩者，同出而異名，同謂之玄，玄之又玄，衆妙之門 萬物作焉而不離，生而不有，爲而不恃，功成而弗居，夫惟弗居，是以弗去. 道冲而用之若不盈淵兮如萬物之宗…和其光，同其塵，湛兮似若存，吾不知誰之子，象帝之先. 谷神不死，是謂玄牝，玄牝之門，是謂天地根，綿綿若存，用之不勤…天地所以能長且久者以其不自生…三十輻，共一轂，當其无，有車之用，埴埴以爲器，當其无，有器之用，…故有之以爲利无之以爲用. 視之不見，名曰夷，聽之不聞，名曰希，搏之不得，名曰微，不可致詰故，混而爲一 是爲无象之象迎之不見其首，隨之不見其後，執古之道，以御今之有，以御今之有，能知古始，是爲道紀孔德之容，惟道是從，道之爲物，惟悅惟忽，忽兮恍兮其中有象，恍兮忽兮其中有物，窈兮冥兮其中有精，其精甚眞，其中有信，自古及今其名不去…有物混成，先天地生，寂兮寥兮獨立而不改，周行而不殆，可以爲天下母，吾不知其名，字之曰道，强爲之名曰大，…天法道，道法自然，道常无爲而无不爲…天得一以清，地得一以寧，神得一以靈，谷得一以盈，萬物得一以生，侯王得一以爲天下正，其致之一也…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道生之德畜之…道者，萬物之奧，善人之所寶，不善之所保…我有三寶，持而盈之，一曰慈，二曰儉，三曰不敢爲天下先，慈故能勇，儉故能廣，不敢爲天下先，故能成器長 .……

老子的思想은그五千言의道德經에서窺見할수잇고 그五千言의要旨는道一字에잇나니首尾五千의言이모도다道一字의形容에不過하다 그런데 그道一字의形容이五千言이나되는대도 그歸趣는맛춤내无，无爲 无爲而无不爲，萬物母，天地之始，无象之象，虛，弗居，谷神，清靜，自然…无와自然에잇다 그런데老子的所謂无란엇더한것인가? 无에도여러가지가잇는데…엇더한有의否定하는否定的无도잇고…絶无， 또엇더한有의存在만은肯定한다할지라도그價值性을否定하는意味의无도잇고…无價値의无， 또엇더한存在性도肯定하고價値性도肯定하면서도无價値性을否定하는意味의无도잇다…理象으로서의无 말하자면第一은物理的(廣義)无， 第二는思想의消極的无， 第三은思想의積極的无라할수잇는데 第一은吾

人의 日常言語에 엇더한 事件, 物體, 理趣의 存在를 否定하는 境遇에 쓰는 말이니 卽  
 그것이 업다는 意味오 世界와 人生의 意義…宇宙의 存在와 人生의 努力을 悲觀하여  
 自棄와 破滅의 暗黑面만을 보는 思想 卽 厭世悲觀, 虛無幻滅主義等이여나 惑은 그것  
 케까지 極端으로 全的으로 가지안트래도 大凡事物의 價値를 否定하는 境遇에 쓰는  
 것이오. 第三은 엇더한 有의 存在를 肯定하면서도 그의 相對的 存在性을 否定하는 意  
 味…相對的으로 無, 絶對的으로 有니 卽 眞理는 不二라면 眞理의 存在性은 肯定  
 하면서도 그 雜多性은 否定하는 것이니 그 否定의 一面만을 본다면 眞理는 아즉 有도  
 아니다. 그러나 眞理不二라고 雜多性을 拒絶하는 反面에는 眞理의 絶對性에 對한 肯  
 定이 包含된 것이다. 그럼으로 엇더한 事物의 存在性을 否定하지안코도로혀 그 眞相  
 을 形容하기爲해서 그 假相을 否定하는 意味의 無를 이르는 것이니… 無라고 形容할  
 有의 一種, 또 그 存在性만 否定하지안홀뿐 아니라 더욱 그 價値性을 肯定하면서도  
 暫有 忽無하는 相對的 價値를 否定하는 意味니 絶對不二 永恒常存의 價値를 肯定하기  
 爲해서 모든 似而非한 假想的 價値를 否定하는 意味의 無… 無價値라고 形容할 有價値  
 의 一種이다 그리고 보면 第三의 無는 無아닌 無 卽 絶對實有인 無라 할 수 맞게 업다 이러  
 한 意味의 無를 主張하는 가장 偉大한 代表思想은 佛敎일지며 佛敎中에도 大乘敎 小乘  
 의 涅槃도 어느 意味로 全然消極的으로 만 볼 것은 아니나 惑第二 意味로 取捨할 수도 업  
 슬바-아닌즉) 일지며 大乘敎中에도 般若門이 더욱 鮮明할 것이다… 般若門의 眼目  
 은 破相顯空이니 般若門의 主張하는 空은 頑空, 無記空, 沉空滯叔之空이 아니라 萬  
 法의 究竟的 眞相인 意味의 空 卽 眞空이라 한다 이 眞空은 理相으로서의 實現性도 肯  
 定하고 價値로서의 絶對性도 肯定한다 世間에 佛家의 空法을 誤解하여 消極的 反價  
 値의 自滅觀으로 論斷하는 사람이 업지안흐나 그것은 잘못이다 假使 眞空이 無意義  
 한 觀念에 不過하다는 主張을 할 수 잇드래도 眞空自體의 意味만은 正解한 後에 批判  
 을 加할 것이다 그런대 老子의 無가 亦是 第三 意味의 無다 天地人間에 事物과 理勢가  
 업다는 것도 아니고 그 事物과 理勢가 잇기는 잇서도 모도다 無價値한 것뿐이란 意味  
 도 아니다 다만 諸有의 本源이 無오, 萬理의 淵泉이 無오, 事勢의 要妙가 無오, 處世  
 의 眞訣이 無란 意旨니 無名之始와 無狀之狀은 一을 形言한 것이며 無象之象과 象帝  
 之先은 二를 形言한 것이며 無之以爲用과 無爲而無不爲는 三을 形言한 것이며 夫惟  
 弗居와 黜而不耀는 四를 形言한 것인대 或人이 老子의 有生於無를 錯解하여 有가  
 無에서 生한다 함이 倒見이고 또 有와 無를 分揀하는 것이 未達이라 한다 그러나 그  
 것이야말로 참으로 倒見이다 老子의 無는 不可名相, 不可形容이란 意味의 無 卽 上述한  
 第三 意味의 無인 것은 道德經을 읽은 사람으로서는 모르는 일이 奇蹟일 만 審言한  
 것이고 또 有無兩見이 未達이란 말도 그야말로 未達이다 老子의 無는 決코 時間的  
 으로- 無로부터 有로 發展하는 意味의 無라 할 것이 아니다 無가 發展해서 有가 되고  
 有가 된 以上에는 無가 업서진다는 말이 아니다 所産인 有 卽 天地萬物은 能産인 有 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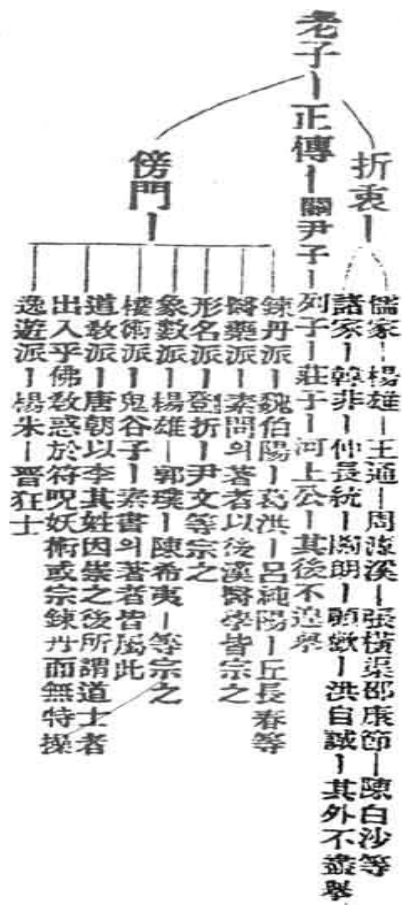
无로부터化成한다는意旨니有는實로无를離해야存在하지못한다는것이다 그럼으로有와无는相即不離한同時에前者는後者の現象的一面이며後者は前者の本體的一面이다 그리고恍惚窈冥玄之又玄은모도다이無의形容이며谷神玄牝은모도다이无의異名이니谷은虛의義며神은靈妙의義라无는實로夷希微하야눈으로볼수도엮고 귀로드를수도엮고 손으로만질수엮다 그러나아조엮는것이아니라 恍惚窈冥靈靈昭昭하게存在한다 이것을无象之象이라하나니 无象之象은모든有象의本體며 玄牝은또谷神과同實이니玄은有이면서도有아닌有, 无이면서도无아닌无의不可致詰할形容이고 牝은牝牡의牝이니即女性이다그러나女性中에도妻性인女性이아니고女息인女性이아니라 오직女性인女性의義니即萬物之母란말과相同하야 亦是无의能産을形言한것이다그런데 이无가宇宙에在하얀萬有化成的本體가되고人間에在하얀修心正己의妙法이되며, 齊家治國의至道가된다는것인데 이无를爲하는것이无爲다 无爲는爲함에反對되는不爲가아니라无爲를爲하는것即无不爲의无爲다 无不爲의无爲를爲함은곳道로서爲함이니這間消息을모르고老子的无爲를誤解하야今古에自誑誑人한徒輩도不少하고 不當한 攻擊도엮지안헛다 그러면 无不爲의无爲를爲함은如何한것인가?老子的所見에從하면 爲는 餘食贅行, 銳, 劇, 情僞, 貌詐, 作爲, 我執, 按排擬議, 巧黠刻意繕行, 成心作性, 與接爲構 日以心鬪, 紛競等의義오无爲는消極的으로는如斯한爲를止之할지며積極的으로는致虛極, 守靜篤, 觀其妙, 綿綿若存, 沖而用之若不盈, 勿忘勿助長, 放而不肆 執而不滯, 靜定守中の義니舉皆用心の機微와養性の秘旨를闡發한것이다.

不爲爲 爲无爲저 无爲를爲함은爲에反하야不爲하는것이아니라 爲를不爲하고无爲를爲함이니爲 (如上의義로)는禍惡의機며 无爲는上德의妙라 爲는有에서生하는過誤, 无爲는곳无의作用이니 孝子の无가死滅的否定的无가아니라一種의絶對理象으로서의无인것과갓치无爲가決코逸遊\*散, 放縱姿肆, 惑은灰身滅知의義가아니라도로혀精進力行, 閉邪存誠, 沖淡和粹의實이엮시는无爲을爲함이나니오 无爲를不爲하고爲를爲함이라할지니彼所謂晉代狂士의類는實로老子的本旨에서는도로혀老자를極排한文公韓愈보담도肖遠하다하겠고近日所謂破壞的虛无主義와老자의虛无无爲의旨와相同하다는것은吏部畢卓이가老자의傳鉢門人이란소리보담도더한층詭誕无稽한수작이다, 그리고 老子는无爲를또다른말五自化, 自然이란말로形容한대가있다 그所謂自化, 自然이란말도无, 无爲에對한誤解와꼭가티 그本旨를그릇되게한것이다 无爲는无의作用의妙, 自化, 自然은无爲의別稱이기도하며, 或은无爲의德化, 或은无爲의實跡을이르는것것이다 그럼으로无와无爲의要妙를領會하면自化와 自然의微旨를곳旁通할수잇는것이다그런데 或人은老자의自然을放肆無行의宗旨로도解釋하고 또는自然界自然科學的

自然이란意味로도解釋하고, 生得, 本能이란意味로도解釋하는모양이다 그래서상말로열토당토안흔人名을끄어내서相同하단니, 類似하단니하는主張을입으로못다해서붓으로까지하는曲學들이있다. 第一說의反對로老子的自然은찰하리禁慾的이며 第二說의反對로老子的自然은찰하리神秘的이며 第三說의反對로老子的自然은찰하리理想的이다 要컨대 老子的爲人은宗教的이며, 그宗教는哲學的이며, 그哲學은神秘的이다 그러므로그思想即道는神秘的信念으로 붓터出發하여人生의究竟義即實踐的眞理를闡發하며 宇宙의秘奧를置覺한것이다 老子的爲人이學者的임보다는聖者的인것과가티 老子的思想은學術的임보다 論理的(廣義)이라 그런고로 그의宗教觀或道德觀은모도다實踐의要旨를說道한것이니-心性修養의實際的妙法을指示한것시오, 心性自體의分析的說明이아니며 그의宇宙觀及社會觀도亦是그運命과秘密을詠歎하며, 或그實際的處理에 對한理想을陳述한것시오 世界自體의組織과社會自體의原理를討究한것은아닌편이다 그것이야古代哲學者及그學術이舉皆그러한것이고, 더구나東洋哲學은모도다그色彩가濃厚한것이닛가, 奚獨老子만 그러한것이아니다 그러나그輕하고短한곳을두고, 그重하고長한곳을들자면이가티보는편이切當하다 엇갯든지 老子는恬靜无爲하고玄默淵深한妙境에自證하여永恒의寂光을常樂하든哲人的聖者였다 그리고 그經綸도自家의體得한妙諦를人間에開示하는대잇슬뿐이였다-그思想은自家의內的生-活그著術은그思想의簡朴한記述-그記述은오직道德經五千言.

### 三. 老子思想의潮流

一言蔽之曰 老子以後의東洋思想은直接間接으로그影響을全然히받지안흔이가업다고까지말할수있다 그럼으로그를反對하는이중에도或은陽排陰崇을했든지, 或은그反動의暗示를어든影跡이歷歷하다 그리고본즉 詳細히그潮流를溯究하라면到底히적은일이아니다 그래서 以下에老子思想潮流의圖學表를잠간그려보고아즉돌밭에업다



그런대 大別하여正傳, 傍門, 折衷三派를 들수있다 竝차서 老子思想의 良否와 利弊와 功罪와 勢力을 斟酌할수잇슬터이다 그러나 그中에 老子를 誤解하여 弊毒을 끼친點과, 老子를 補充하여 發展한點을 詳考할것이다 엇갠지 老子는 東方의 大哲人이다 그의思想의 偉大한 感化를 준것만치 그反面에 弊端도 업지안타 그러나 그것은 老子에 限한일이아닌 以上에 煩論할 必要가 업고 다만 學問에 留意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窺알어 들만 하갠고 畚아니라 우리 現代人은 自己의 時代的 現實을 反省해 볼 資料로 보아서 研究해 볼 必要가 업지안홀줄 생각한다 그러나 老子의 가장 精到한 處는 用心의 機微를 觀破하여 禍福의 權柄을 自掌한 妙理에 잇는것을 보아주는 것이바 른일이다 (終)